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제 637호 현대불교
2007년 7월 18일(음력 6월 5일) 수요일 / 불기 2551년
법공양 페이지

21

진짜로 믿고 행하신다면 진짜 그대로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참다운 제자가 되려면

문 마음공부를 해 나간다고 하면서도 타력으로 빠지지거나 사주와 팔자를 몰으러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 자신도 그런 의식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부처님의 정법이 아니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님, 부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부처님의 참다운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답 우리가 무조건 부처님 앞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부처님의 진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를 깎고도 더부룩하게 기르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머리를 안 깎고도 아주 단정히 깎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생명이 있고 마음내고 몸이 움직여가는 이 삼위일체가 회전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또 얘기하자면 대승 불교니 소승 불교니 선 불교니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동시에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마음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이름입니만 주인공(主人)이라고 하는 그 뜻을 항상 얘기해서 잘 납득하시라라고 믿습니다. 이름을 내세울 수 없는 게 주인공입니다. 한 물건도 없다고 육조 스님은 말씀하셨죠. 뒤집어서 놓고 보면 봄동산에 한 물건이 딱 차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어떤 것이든 내세를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발을 확 벗어 놓고는 아무 걸림이 없이 여기 들어오듯, 집 안에서 걸레를 빨아서 휘던져 놓듯 우리 인생은 그렇게 지금 찰나찰나 이루어져서 진화되면서 발전하면서 돌아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병고는 어떤 것인가. 여러분이 모두 절에 다녀도 똑같은 소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넓은 사람도 있고 좁은 사람도 있고 그렇죠. 사람들이 절에 다니면서 기도를 한다든지 기도를 부친다든지, 또는 백 배를 하든지 천 배를 하든지 또 일 배를 하든지 그건 여러분의 정성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마음에 따라서 몸이 움직여가려는 거니까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과거에 어떤 죄업이 있느냐 업보가 많으냐 이런 데에 걸리지 말란 말입니다. 천 차만별로 다가오는 문제들이라든가 또는 그걸로 인해서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지어서 팔자가 이렇게 나니 운명이 이렇게 나니 이러시는데, 이런 데 걸리지 않아야 되겠다는 애깁니다.

물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한테 그런 의식을 세워 주기도 싫을 뿐만 아니라 세워 주

이전에 벗겨 줘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벗어진다던 여러분도 벗어질 거고 내가 벗어졌다던 여러분도 벗어질 겁니다. 길잡이라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닙니다. 내가 배가 부르면 일체 만물만생 일체제불이 다 배가 부르듯이, 내 한 생각으로 비가 내리게 해서 일체 만물만생을 전부 축축하게 배를 불리듯이 말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한 겁니다. 그러니 세달에, 훗날에 어찌나 저찌나, 내년에 좋으니 나쁘니, 이런 것에 속지 말라 이 소립니다. 말로 따져서 하자면 무어(無如라는 것도 있고 일여(一如라는 것도 있고 여여(如如라는 것도 있고 즉여(卽如라는 것도 있고 겹쥘(如如라는 것도 있고 사구공법(四句空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것을 타파하지 않으면 우린 자유권

자기 주인공 속에, 즉 말하자면 우주 섭류의 소용돌이, 법계의 소용돌이, 그 소용돌이 속에 나와 더불어 같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한마음 속에 말입니다. 주인공이라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그러나 부처님을 믿고 다니더라도 둘 아니게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법당에 오면 부처님 몸과 내 몸이 하나가 아니, 부처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아니, 부처님 생명과 내 생명이 하나가 아니 어찌 일체 만물의 생명과 나의 생명이 다르며, 법이 다르며, 움직여가는 게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불과 법이 하나가 아닐지언만 승보도 그러하리라 했습니다. 이 몸은 그냥 따라다니는 껍데기입니다. 그런 껍데기 차와 같은 거죠. 운전수가 가지는 대로 가는 차.

그러나 그 껍데기도 소용없는 게 아니죠. 그건 화두예요! 내가 이 세상에 나왔으니 화두죠! 내가 없었더라면 우주도 있는지를 몰랐고 이 세상도 있는지를 몰랐고 상대도 있는지를 몰랐고 이거죠. 그런데 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지수화풍의 근원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체들이 나왔죠. 그렇듯이 지수화풍이 있기 때문에 일체, 물질적인 이 모든 것이 지수화풍이 모여서 움직여가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 지수화풍이, 껍데기가 움직여가는 것보다도 유(有)의 법과 무(無)의 법이 같이 움직여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마음 따로 있고 육체 따로 움직여가고 이라는 게 아니죠. 마음내는 것 따로 있고 움직여가는 육체 따로 있고, 마음내는 놈 따로 있고 마음내는 이진 놈이 따로 있고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놈이 다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내가 여기다가 갔다 놓지 않으면 죄를 사해 주지 않겠지, 여기 칠성님 전에 놓지 않으면 우리 남편이나 자식들의 명이 길지 않겠지, 약사보살한테 놓지 않으면 병이 안 낫겠지.' 이런 생각일랑 아예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이라는 건 고정됨도 없을 뿐더러 고정관념도 없다 이거죠. 생각해 보세요. 만나는 것도 말하는 것도,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먹는 것도 가고 오는 것도 고정됨이 있는가. 모두가 공했어. 공한 것은 없어서 공했다는 게 아니거든요. 한 찰나 찰나 나뉘며 돌아가기 때문이죠. 어련에 적의 나를 나라고 할까요, 늑장을 적의 나를 나라고 할까요? 나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한 물건도 없다고 말씀하신 게 꼭 짚기 때문에, 한 물건이 꼭 찢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원호 대사는 한 물건이 없다고 하기 이전에, 빛

자루로 깨끗이 쓸어 놓으니까 낙엽을 일부러 갖다가 뿌려 놓으면서, 잘못 쓸었다 이거예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마음을 가난하게 가진다면 항상 바둥거리고 지혜로운 생각이 안 납니다. 왜 놓지를 못해요?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신발 벗어 놓고 들어오듯 그렇게 착을 두지 말고 놓아라 이겁니다. 본래 놓고 가는 거니까, 본래 제자리걸음으로 끝난 데 없이 놓고 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항상 이게 옳으니 그제 옳으니 하고 따지거든요. 그렇게 따지는 것은, 이견 배고 이견 좃대고 이견 사공이고 이견 물이고 이렇게 따지는 것은 교리에 관한 건이겠지요. 그런데 지금 저는 목마르던 직접 그냥 마시는 걸 말하는 겁니다.

어지고 어떤 때는 정말 믿지 못하고 나를 못 버리는 거에 대해서 화가 나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하면 스님 말씀처럼 힘이 없이 주인공에 맡기면서 시험을 볼 수 있는가 해서 질문을 올립니다.

답 그런데요, 한 발짝 떼어 놓으면 한 발짝 없어진다고 그랬죠? 그것이 가만히 편안하게 다 버리고 있으란 말이 아니죠. 어떻게 들었어요? 연방 발이 고정되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떼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할 때 '나를 버려야 된다.'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자발이 하는 거다.' 한다면 나를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안 그래요? 간략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버려라' 하는 것은 나를 버리고 중심 즉, 자불(自佛)만 믿어라 이 소리거든요. 학생이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 없으면 몸은 송장이 되거든요. 내 몸이 없는데 어떻게 자발이 있겠나. 그러니 몸중이는 자동차와 같고 자불은 운전수와 같고 기름과 같거든요. 그러니 차는 운전수를 믿어야지.

또 편 걸로 비유한다면 저 나무들이 뿌리 없이 사는 거 봤나? 본래 자불과 학생의 육신은 같이 집을 삼아서 있어, 저 뱀, 나무도 뿌리와 싹과 같이 달려 있지? 본래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가 없이 믿어야 돼. 학생을 리드해 나가고 학생의 보디가드가 돼 줄 수 있고 학생을 이끌어 줄 수 있고 해결해 줄 수 있고 가정을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바로 자기의 참 기사니까. 그러니 시험을 보더라도 이거는 자불 주인공만이 이거, 이런 과목은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런 과목을 볼 때 어떻게 할 수 있고 또 뭐, 동그라미를 그린 다든가 거길 찍어서 놓는 다든가 이런 데도 다 거기서 그렇게 하면서 찍고 돌아가야 돼. 모르는 거는 이 안에서 하게 만들어야 돼. 바깥에서 하면 도저히 울상갈팡이 돼서 잘못돼.

이런 소리를 들었어. 누가 방쪽으로 처음에 갔는데, 여기서 시험을 봐도 안 된다 그러기에 그리로 가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가서 아마 절절히 도 달했던 모양이야. 자기가 말도 통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아주 간절하게 했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말의 뜻을 바깥으로 자꾸 마음에서 내 주니까 그 뜻대로 했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방쪽에서 말을 얼른 얼른 배웠다는 거지, 금방 배워서 거기 졸업하고도 또 중국으로 갔어요. 중국에 가서도 그렇게 할 거야.

22면으로 계속

“
우리는 모두가 공생이다!
공심이다!
또 공체다!
공용을 하고 산다!
공식이다!
”

을 알지 못해요.

우리가 지금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움직여가고 있는데, 끝난 데 없는 이 평등 진리 속에서 우리는 항상 그런 데 걸릴수록 속고 삽니다. 속에서 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끝난 데 없이 모습을 바꿔 가지고 또 나올 겁니다. 내가 항상 이런 말을 되풀이합니다만 팔만대장경이 글자모만 쓰여 있는 게 아닙니다. 병풍 둘러치듯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즉행이며 즉여란 말입니다. 우리가 말한마디라도 즉설이 돼야 법으로 행해지게 되죠. 한데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말 한마디 해서 한데 떨어지면 위로는 부처님께 누가 되고 또 아래로는 따르는 사람에게 햇빛을 줄 수가 없어요. 햇빛! 묵은 빛을 감지 못하고 햇빛을 줄 수 없으니 자라는 애들은 어떻게 자라겠느냐 이 소리지요. 여러분은 생각을 깊이 하셔야 합니다. 부처님은

“
부처님은 자기 주인공 속에
우주 섭류의 소용돌이
법계의 소용돌이 속에
나와 더불어 같이
돌아가고 있다!
”

아무리 여러분이 불제자로서 수십 년을 다녔다 하더라도 실천이 아니라면 소용없는 겁니다. 목마르데 물을 보고도 못 먹는다면 '아! 여기 이렇게 좋은 물이 있다더라.' 하고 보고 듣고 해도 자 유스럽게 퍼먹지 못하고 떠 주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묵은 빛을 감으며 햇빛을 줄 수 있겠습니까?

함미 없이 시험을 보려면...

문 대입 시험을 앞둔 수험생입니다. 며칠 전에 고3 법회에 갔는데 스님께서 나를 버리고 주인공으로 살라는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지 법문을 들을 때는 '그래, 정말 나는 없는 거다.' 하고 진짜 느끼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또 '정말 할 수 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스님 법회가 끝나고 얼마 안 있어서 갑자기 자신감도 없



외교법인 한국 - 미얀마 친선교류협회가 적극추천하는

미얀마 성지순례 중정스님 친견 대법회

9/14, 10/12 2회출발!
양곤-바간-헤호-짜익티오 7일

₩ 1,540,000원

(포함: 탁발공양행사, 특급호텔, 성지순례 입장료, 인천공항세, 출국세, 유류할증료, 가이드+기사탑, 미얀마비자발급비, 미얀마 공항세, 미얀마사(트)사(트))

◆ 미얀마의 중정 큰스님 친견 ◆

부처님의 위신영이가 가득한 기도처로 유명한 짜익티오에서의 대법회 봉행
에스굿투어가 최초로 개척한 성지!!!!!!

- 짜이티사용 파고다 방문 및 우 뻘나디바 큰스님 친견
(짜이티오: 병마퇴치, 병고액난소멸로 환희심이 가득한 기도처로 유명한 곳)

불교 성지순례 전문 여행사

주에스 굿 투어
tel: 02-365-7747 fax: 02-365-2994

* 에스굿투어는 수익의 10%를 미얀마의 한국기술종합대학교 운영기금으로 기부합니다.